

어떤 주제의 책인가?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추천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하연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황금가지	구버서 크리스티	일 꼬마 병정이 밥을 먹으려 나갔네. 허니까 사래들었네. 그리고 어흥이 날았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경기북부지부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김정희	절망	문학동네	구명오	상처는 필연이고 통치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상처를 만짐으로써,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가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를것이다.(p344)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경기북부지부	예대음 작은도서관	백정희	악인의 거리를 본다	책읽는 고양이	소노 아야코	나에게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건네는 예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가까이에 머물러 살아가더라도 바라보는 인생의 풍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찾는책	조영아	나니 올리브에게	문학동네	루리	정확한 현실 속, 누군가 거기 있으므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름다운 책입니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서울서부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유미선	미드나잇라이브러리	인물루엔셜	메트헤이그 지음/노진성	나는 결코 되고 싶은 사람이 다 될 수 없고 원하는 삶을 모두 살이룰 수도 없다. 원하는 기술을 모두 배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왜 그거기를 바라는가? 나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모든 증후군 색조와 변주를 살아내고 싶다. - 살바이 플러스 첫 장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읽기 시작할 책입니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울산경주지부	작은도서관(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	박정자	천 개의 파랑	허블	천선란	하늘이 그곳에서 그렇게 빛나는데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진 휴먼노이드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김숙진	흔노아	창비	성혜나	진짜와 가짜의 구분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울산경주지부	예가작은도서관	유왕민	스토너	RHK	존 윌리엄스	자네도 자네 목을 하게 될 거야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울산경주지부	월드시티2작은도서관	박애영	다정함이인격이다	나무생각	김선희	말이 마음보다 먼저다 타인없이는 나도 없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현정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어하우스	황보름	동네 서점에서 이야기이다. 이 책은 늘푸른 도서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할 수 있는 책이다. 말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담담하게 일상의 이야기가 더 깊이있게 생각하게 하는 책인듯. 나의 인생 책이 된 것 같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절망	문학동네	구명오	타인의 품에 난 상처를 통해 진실을 알아가는 능력이생겼으나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제주지부	שלמדאערלינדוסערן	김미영	맑은방	문학동네	최은영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서글픈! 미성숙한 인간의 작은 악행을 느꼈습니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충청지부	나무그늘작은도서관	양선미	이처럼 사소한 것들	다산책방	클레어 커건	2024년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작과 함께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책에서 말하는 "이처럼 사소한 것"이 공명했는데 지금에서 읽었다.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충청지부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김하루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산책방	콜리언 반스	"이름을 바꾸는 나야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읽기 발견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지을 수가 없었다"는 필통의 생각에 보태어 확실함을 살아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발견시켜야 하는지 나의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2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	충청지부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식디라리	민음사	헤르만 헤세	P219 우리 상은. 다시 사랑. 중간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이야기로 축소될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김나현	해피 버섯데이	스토리보물	박희나	지식은 전수되지만, 지혜는 채득되는 것. 상이라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비로소 내면은 깨어난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자미다의 길을 걷는 수행자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고윤희	영수0수	아르데	김영탁	재브리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갈수있는 아법사가 되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김은아	나의 괴짜 친구에게	김빛아레인	고정순	그 사랑도 통했던 거지 그 기억 하나가 겨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서울동부지부	수몰라움작은도서관	장영숙	첫 여름, 영주	우체	김공희	천재 피아니스트 공한 공든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은 고장 온 작가님의 그림책. 친구에게 쓰는 편지같은, 나에게 보내는 독백같은 이야기가 담고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서울서부지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영연희	손간을 달리는 할머니 1,2편	문학동네	영유진	재브리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갈수있는 아법사가 되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데일리필로소피	다산초당	라이언홀리데이,스티븐 핑커	자식들이 막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늙은 부모는 신체 기능을 상실해가지.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 날개를 펼치는 것에 대해 좌절할을 가질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난 너희들이 다들 날개를 잘 펼치고 있고, 더 마음껏 날지도 원다고 생각한다. (2권 p.126-128)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영덕이름작은도서관	김경애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리움프레스	크리스티나 파니발	매일 아침,철학 한 문장을 읽는건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영덕이름작은도서관	김영란	무례한 친구가 생겼어요	리움프레스	크리스티나 파니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문수신터삼작은도서관	문선민	안녕이라 그랬어	문학동네	김애란	모든 친구가 지니를 좋은친구라고해서, 모든친구가 지니를 좋아하는건 아니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비발디작은도서관	정혜문	바닷마을 책방 이야기	남해의 분남	지영미래넷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줌 -전세, 집값, 비정규직, 간병, 계급 의식 같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인물에게 골고루 배치해 보여줌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술도서관	김소은	갑자기여론	독립출판	김지나	그 책방지가가 제게 해준 조언은 "책을 혼자 읽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같이 읽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뜻이었죠.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허랑작은도서관	배수경	즐거게 미친 큐레이터	생각의 나무	이일수	어느날,갑자기,세상을 내는 어른이 되어 버렸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허랑작은도서관	배수경	천만책 통성	이지출판	김정	미슬강상의 오미를 알면 인생의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을 맛 볼 수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울산경주지부	햇살작은도서관	박진숙	반디가들리는편의점	모모	마지다 소노코	하늘로 날려 보낸 풍선처럼, 지난간 슬픔을 경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인천지부	개인회관	이소은	모든 것의 새벽	김영사	데이비드 그레이버, 데이비드 하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잠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제주지부	שלמדאערלינדוסערן	김미영	나니 올리브에게	문학동네	루리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선사시대와 농업혁명, 사유재산이 생긴 이유, 계급이 생긴 이유 등에 대해 공식처럼 배웠던 개념들은 180도 뒤집어 볼 수 있어서 좋다. <총과쇠> 시 <사피엔스>를 읽으며 역사를 광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점이 좀 불편했던 점이 해소된 느낌이다. 어렵지만 매우 재미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제주지부	שלמדאערלינדוסערן	김미영	나니 올리브에게	문학동네	루리	영양인 사람도 살 수 있지? 망가진 인생도 살아도 되나? 수도없이 생각했어. 더이상 어떻게 해볼수없게 실패해버린 내인생들. 그런데 당신의 편을 읽고보니..말씀이 어떻게든 살아내면 무언가가 남아. 아무것도 남길게 없는 내 인생에조차 이 편지가 남았잖아.						